

사화기 은일가사 <낙지가>와 <서호별곡>의 관념성과 작가의식*

최상은**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낙지가>의 관념성과 의식지향
- III. <서호별곡>의 와유 풍경과 관념적 흥취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낙지가>와 <서호별곡>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사화기 은일가사의 성격을 밝혀보려 했다. <낙지가>는 곤륜산으로부터 담양의 응봉에 이르기까지 명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조선, 조선 중에서도 표준이 되는 담양에서 왕족으로서의 자존감과 유가의 이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리고 <낙지가>는 신랄한 현실비판 인물 증장통의 은일문학인 <낙지론>을 사숙하여 정치현실의 난맥상을 잊고 여유로운 은일생활을 하고자 했던 작가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장소의식으로 볼 때, <낙지가>는 작가 이서가 태어나고 자란 한양이라는 장소를 상실하고 담양에 살았지만, 담양도 진정한 장소로 만들지 못하고 관념의 세계에만 머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호별곡>은 한강을 유람하면서 한강의 실제 풍경이나 유람의 흥취 대신 수많은 전고를 원용, 작가의 의식은 은거 선현들의 은거지를 와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강은 고향인 한양의 서호에서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상의 세계인

* 본 연구는 2014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선현들의 강호만 넘나들었다. 선현들의 강호는 구체적 경험의 장소가 아니라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 장소인 것이다. 작가는 전고의 인용과 관념적 장소의식을 통해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덮고 풍류를 과시하고 흥취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것이 <서호별곡>의 관념적 흥취이다.

<낙지가>와 <서호별곡>은 정치현실의 난맥상과 관련된 갈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은일지사의 관념적 이념과 흥취를 그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두 작품 공히 불완전한 장소의식을 통하여 은일생활 이면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낙지가>와 <서호별곡>은 혼란한 정치현실이 관념을 낳고, 그 관념이 은일지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어 : 은일가사, 사회기, 정치현실, 이념, 흥취, 관념, 전고, 장소의식

I. 머리말

조선전기의 은일가사는 여러 편 남아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들의 歸去來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士禍期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 은일가사의 작품세계의 일단을 밝혀 보려 한다. 이 시절에는 귀거래가 조선 사대부들의 생활동경이었고 문학사조였다.¹⁾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하던 사대부들이 정치현실을 멀리하고 은거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그만큼 심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동시대 작품 두 편을 통하여 은일가사의 작품세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논의 대상은 李緒의 <樂志歌>와 許樞의 <西湖別曲>이다.²⁾

1)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1, p.13.

2) <낙지가>는 중종 때, <서호별곡>은 명종 때에 지어진 작품으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시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서는 중종반정 이듬해의 모반 정국에 휘말려 유배를 당했고, 허강의 아버지 허자는 중종 때부터 시작된 대운과 소운의 대립, 소운

<낙지가>의 작가 이서는 양녕대군의 증손자로서 중종 때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누명을 쓰고 전라도에 유배되었는데, 유배된 지 14년만에 풀려났지만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담양에 터전을 잡고 거기서 일생을 보냈다. <낙지가>는 담양에 터전을 잡고 살면서 쓴 작품이다. 이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화 등 정치의 난맥상으로 볼 때 한양으로 돌아가 봐야 정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서호별곡>의 작가 허강은, 그의 부친인 許磁가 을사사화 후 명종 때 大尹에 대한 小尹 내의 강경과 李芑 등과 대립하다가 함경도 홍원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서강에 은거하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西湖處士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 지은 작품이 <서호별곡>이다.

그러면 먼저 두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낙지가>에 대한 연구는 정익섭³⁾이 이서의 문집 『夢漢零稿』와 함께 <낙지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익섭은 작품 소개와 더불어 작가와 작품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이상보⁴⁾도 작품 해설과 함께 담양 지역 가사에 있어서 <낙지가>가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성기⁵⁾는 <낙지가>의 결말 “仲長統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ㅎ여셔라”에 주목, <낙지가>와 <낙지론>

내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희생된 만큼 두 사람은 중종 연간의 혼란한 정치현실의 연속선상에서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은일가사로서 송순의 <면앙정가>가 있지만, 이 작품은 창작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판이하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정익섭, 『이서의 낙지가 고찰』, 『국문학보』3, 전남대, 1962, pp.1-19.

4)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pp.79-87.

5) 김성기, 『이서의 낙지가 연구』, 『고시가연구』 제7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0, pp.39-59.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낙지론>은 철저히 자기 위주의 개인적 삶을 애기했다면, <낙지가>는 국토를 사랑하는 조국애와 백성을 아끼는 애민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담양권 가사에서 <낙지가>의 위상을 논의하면서 송순의 <면앙정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상춘곡>이 아니라 <낙지가>라고 주장했다. 김성기는 국내외 작품과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낙지가>의 위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송재연⁶⁾은 왕족 이서의 유배생활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창작의식에 대하여 연구했다. 이서는 한시를 통해서 유배생활 중 한양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했고, <낙지가>에서는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등 유가적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논문은 이서의 한시와 『몽한영고』의 서·발·행장 등을 참고로 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낙지가>를 분석,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상원⁷⁾은, <낙지론>을 지은 중장통은 물론 이서도 시골에서의 한가로운 삶은 소망일 뿐, 그 이면에는 담양 생활에 대한 만족보다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기위로를 위하여 <낙지가>를 지었다고 했다. 이 논문은 문학·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을 비교, 흥미있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많은 작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허강의 <서호별곡>은 김동욱⁸⁾이 학계에 소개하여 알려졌다. 김동욱은

6) 송재연, 『이서의 시가에 나타난 창작의식 고찰』, 『한중인문학연구』45, 한중인문학회, 2014, pp.133-153.

7)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175-178.

이 작품의 수집 경위와 작품 진위, 그리고 작품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작품 원문을 소개하였다. 조규익⁹⁾은 허자의 문집인 『동애유고』의 부록에 실린 가사 자료에 대한 해제를 달면서 <서호별곡>의 악조를 분석, 가곡과 유사한 방법으로 노래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서호별곡>은 한강의 구체적인 장소와 강호자연을 등장시키고 있어서 당시의 정적이고 관념적인 강호 추구로부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의미파악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강호자연을 등장시켰다고 해서 과연 이 작품이 관념적 태두리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정민¹⁰⁾은 사화와 당쟁, 전란을 겪은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층의 중국 서호 동경과 그것이 한양의 서호로 전이되는 과정을 살펴면서 <서호별곡>을 논의했는데 실제로 시인이 노래한 것이 한강의 서호인지 중국의 서호인지조차 분명치 않을 정도라고 했다. 당시의 문학 풍조에 대한 거시적 안목에서 개별 작품을 분석한 의미있는 해석이지만 논의를 서호의 상징 의미에 국한하고 작품세계의 체계적 분석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김현식¹¹⁾은 <서호별곡>과 <서호사>를 비교하여 그 변이양상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창되던 <서호별곡>을 음영하는 <서호사>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즉 여러 사람이 교유하는 장소에

8) 김동욱, 『허강의 서호별곡과 양사언의 미인별곡』, 국어국문학회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pp.272-283.

9) 조규익, 『동애유고 부록 가사에 대하여』, 『송실어문』 제12집, 송실어문학회, 1995, pp.235-240.

10)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남열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81-306.

11) 김현식, 『<서호별곡>과 <서호사>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pp.183-214.

서 가창하던 <서호별곡>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내용을 음미하기 위해 시상을 내면화하고 의미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호사>로 개작했다고 했다. 논의를 위해서 <서호사발>을 자세히 분석하고 두 작품의 변이부분을 대교해 가면서 치밀하게 검증했다. 이 논의 역시 두 작품의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서호별곡>에 대한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낙지가>와 <서호별곡>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작품 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거의 없지만 관점에 따라 진전된 논의들이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기존 논의의 대체적인 관심은 중국의 인물, 지명, 작품과 관련하여 작품의 관념성과 작가의 이념성, 향유방식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에 힘입어 작품의 관념성과 구체성, 이념과 현실, 흥취와 비애의 얽힘 양상을 통하여 작가의식의 지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지역이나 자연에 대한 인식, 즉 장소의식을 통해서 작가의식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Ⅱ. <낙지가>의 관념성과 의식지향

<낙지가>의 작가 이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분적 위치와 정치 현실의 난맥상에 얽혀 왕족이지만 한양 생활을 포기하고 멀리 담양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양 생활의 위험을 감지, 담양에 머물러 일생을 보냈던 것 같다. ‘樂志’의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서의 생활 현실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왕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도 그렇고 태어나고 자란

한양에 대한 향수도 정서적으로 이서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담양에서 지은 <述懷>라는 한시에 이런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斗縣雲山壯	두현의 운산은 건장한데
寒窓歲月多	찬바람 부니 세월은 많이 흘렀구나
分明今夜夢	오늘밤 꿈에는 꼭
飛渡漢江波 ¹²⁾	날아서 한강물 건넜으면

멀리 타향에서 계절의 바뀜을 보면서 무상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고 꿈속에서라도 가고 싶은 한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외가가 가까이 있어서 외로움이 덜하기는 했겠지만 고향인 한양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는 <낙지가>를 지어 왕족으로서의 기상과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말에서는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하겠다고 했다.

먼저 <낙지가>를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 전체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곤륜일맥이 뺨어내린 천부금성 조선
- ② 성인의 문물제도를 이어받아 계계승승할 조선
- ③ 조선 팔도의 명산과 담양의 추월산
- ④ 미풍양속의 담양
- ⑤ 담양 남쪽 30리 응봉 아랫마을에 터를 잡음
- ⑥ 仁德으로 한가롭게 살아가는 응봉 아랫마을
- ⑦ 성현의 삶을 본받자는 교훈과 逆理에 대한 경계
- ⑧ 안빈낙도하는 삶

12) 李緒, 『述懷』, 『夢漢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2285, 경인문화사, 1997, pp.414.

⑨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과 <낙지론> 사숙

이서는 단락⑤ 이하 담양 응봉 아랫마을에 터를 잡고 사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단락①~④까지의 긴 序詞를 두었다. 서사에서는 세상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담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 곤륜산의 정기가 뿔어내려 조선이 되었고, 천우신조로 조선 팔도의 명산이 형성되었음을 일일이 말했다. 그리고 전라도 지리산과 담양의 추월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담양이 세계의 중심인 듯이 표현했다. 조선이 계계승승하여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 본인이 살 담양이 호남에서 제일가는 고장이라는 점을 호기 있게 보여 준 것이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崑崙一脈 쪽떨러져 小中華로 드러올제
 唐堯曾祝 華山으로 夫子昔登 泰山되야
 七百洞庭 내려오며 十二巫山 얼핏 짓고
 秦始皇帝 萬里城을 天開地裂 헛터리며
 乘彼白雲 구름속의 海東朝鮮 도라보니
 天府金城 터이로다 萬世基業 지여보시
 漢陽江水 멀리들너 終南山이 되어서라
 左爲靑龍 右白虎로 直上五千 三角山이
 萬戶長安 터를 지여 以俟當世 君子로다¹³⁾

작품 서두인 단락①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곤륜의 맥이 화산, 태산, 동정호, 무산, 만리장성을 거쳐 조선으로 힘차게 뿔어내려 오는 기상이 느껴진

13) 임기중 편,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pp.429.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에서 하므로 각주 생략.

다.¹⁴⁾ 이들 명산대천의 정기가 아득히 우리 조선에까지 뻗어와 천부금성을 이루었고 널찍이 한강물이 남산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당자리에 우뚝 솟은 삼각산이 넓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군자를 기다렸다고 했다. 조선이 곤륜산의 맥에 닿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양 역시 만세를 이어갈 최고의 도읍지임을 천부금성·좌청룡 우백호·직립오천·만호장안 등 과장법과 미화법을 활용하여 호기있게 표현했다.

그러면, 단락②를 살펴보자.

黃河之水 天上來라 千年一清 물이 말가
 請祝聖人 이 아니며 九五龍이 飛龍이라
 粒我蒸民 모든百姓 水火中の 건지시고
 向明南面 卽位하시니 仙李乾坤 王春이라
 西周文物 八百이요 東魯衣冠 七十이라
 唐虞太平 五百年의 湯武休治 一千載라
 聖子神孫 繼繼承承 於千萬年 無窮이라

단락①에서는 지리적 맥락에서 만세를 이어갈 조선의 기상을 기렸다면, 단락②에서는 백년하청이 아니라 천년하청의 절호의 시기에 성인의 축원으로 성군이 탄생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이씨 천하인 조선을 세웠음을 선언했다. 즉 조선은 최고의 태평시절인 요순·탕무로부터 유가의 이념을 정립한 주나라·노나라의 문물제도를 이어받은 정통성을 지닌

14) 그런데 작가가 화산, 태산, 동정호, 무산, 만리성을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곤륜산은 최고의 선경이고, 화산과 태산은 유교적 이념과 관련되어 있고 동정호와 무산은 시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다. 가혹한 정치의 표상인 만리장성은 적절한 소재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열고 땅을 쪼개듯 힘차게 뻗어나는 기상이 있어서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라이기 때문에 계계승승 무궁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仙李乾坤 王春”이라 하고 “請祝聖人 이 아니며 九五龍이 飛龍이라”라고 한 데서는 이씨 왕가를 신성한 가문으로, 태조 이성계를 성인으로 송축함으로써 왕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락①②는 조선이 신성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중심인 한양 역시 천부의 도읍지임을 말하기 위하여 시선이 저 멀리 신들이 산다는 곤륜산으로 향했다가 한양의 삼각산으로 접근해 왔다. 삼각산에서 시선을 일단 정지하고 그 제도문물의 훌륭함을 노래했다. 그런데 단락③에서는 또 시선이 바뀐다. 곤륜산을 향했다가 삼각산으로 접근한 시선을 조선 팔도로 돌려 팔도의 명산을 더듬었다. 경기도로부터 전라도에 이르는 조선 팔도의 명산들 역시 천우신조로 생겨났다고 했다. 남과 북, 동과 서로 번갈아 이동하는 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기이하고, 힘찬 산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팔도를 오르내리던 시선은 전라도의 지리산을 거쳐 담양의 추월산에 머물렀다.

全羅道라 智異山은 萬八千年 靑靑하고
湖南千里 名區되여 五十三州 各고을의
星列碁布 버런느디 秋月山이 潭州로다
千萬年之 主龍이오 十五面之 標準이라

단락③의 마지막 대목이다. 다른 곳의 산들에 대해서는 不可勝數 奇峰, 年年歲歲 九月, 一萬二千 諸峰, 雲外特立 高峰, 海上雄鎮 奇觀, 轟天壓地 不老, 罷霧粧霞 春色 등 관습적인 표현으로 일관하다가 지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지리산은 천지가 개벽한 이후 만 팔천 년을 변치 않고 푸르러 호남 천 리를 이름난 고장으로 만들었고 53주 각 고을

을 포진시켰는데 그 고을의 산들 중 담양(담주)의 주월산이 으뜸이라 했다. 과장법을 활용, 주월산은 오랜 세월 이 지방의 주산이고 인근 지방의 표준이 되었다고 했다.

단락④를 통해 문맥의 연결을 살펴보자.

往古來今 太守마다 郡中無事 高枕호여
 化及萬家 仁聞이오 恩給百姓 善政이라
 推賢養老 美俗이오 愛民下士 厚禮로다
 北闕下의 良臣이오 南州中의 賢候로다
 瓜期六載 城主例를 更留五年 民願이라

이 대목은 담양의 미풍양속을 보여주고 있다. 부임하는 태수마다 잘 다스려 군이 태평하고, 백성들은 어진 사람을 추앙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태수의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소원을 하기까지 한다. 담양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주변 지역의 표준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락③④의 문맥 구성은 단락①②와 유사하다. 지리적 맥락을 언급한 단락①에 대하여 단락②에서 문물제도의 정통성을 말했듯이, 단락③의 지리적 맥락에 대하여 단락④에서는 미풍양속을 칭송하였다. 이런 대응은 단락⑤⑥에서도 나타난다. 담양군에 머물렀던 시선은 다시 범위를 좁혀 응봉 아래마을로 옮겨가 여기서 멈춘다. 여기가 바로 작가 이서가 터를 잡고 사는 마을이다. 단락⑤에서는 득인산, 만덕산, 금성산, 장산으로 둘러싸인 응봉 아래 마을에 터를 잡았음을 밝혔다. 다음은 단락⑥의 내용이다.

主聖臣良 이世上의 ㅎ음업시 安土 ㅎ아
 得仁山上 仁을 어더 親親爲大 養親 ㅎ니
 孝誠이야 至極 ㅎ가 北堂安寧 바리셔라
 萬德山上 德 ㅎ바다 明明爲道 敎人 ㅎ제
 草堂三間 지여노코 迎月掃石 閒暇 ㅎ드

터를 잡고 초당을 지어 한가롭게 살고 있는 마을 역시 성군과 어진 신하가 선정을 베풀어 평안하다. 그리고 지명을 활용하여 이 마을이 군자가 살 마을임을 밝혔다. 득인산에서 ‘仁’의 덕목을, 만덕산에서 ‘德’의 미덕을 찾았다. 인과 덕으로써 효성을 다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마을, 여기야말로 작가가 초당삼간 지어놓고 한가롭게 살 수 있는 마을이다.

작가가 본인이 터를 잡고 사는 마을을 얘기하기 위하여 먼 여정을 거쳐 왔다. 저 멀리 세상의 끝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한양으로, 한양에서 팔도를 거쳐 담양으로, 담양에서 다시 남쪽으로 30리 응봉 아랫마을까지 왔다. 시종일관 산세의 뻗어남을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켰다. 이는 왕족으로서 만세기업을 이룬 조선 왕조의 힘찬 기상과 융성한 문물제도를 과시하고, 담양의 작은 마을에 터를 잡은 은일처사가 시골생활하는 명분을 찾기 위한 머나 먼 여정이었다. 직전에 있었던 중종반정, 자신의 유배사건 등 북마전의 정치현실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이상 국가 조선을 얘기하고 편안하고 한가한 시골 생활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담양 시골마을에서 작가는 어떻게 살았는가? 산세를 중심으로 시상을 끌어온 단락⑥까지와는 달리 단락⑦부터는 오로지 이념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단락②④⑥에서 조선과 담양, 그리고 응봉 아랫마을이 명당으로서 계계승승 군자가 살아갈 곳을 천명하기 위하여 오랜 유교이념의 전통과 문물제도를 제시했다면, 단락⑦ 이하에서는 자신의 이념과 삶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락⑥의 득인산과 만덕산에서 얻은 인과 덕에 대한 상상력이 단락⑦의 <淇澳詩>와 <葛覃詩>에까지 미쳐 대왕과 대비의 聖德과 仁惠를 기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단락⑦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담양에서의 삶을 대왕과 대비에 대한 칭송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왕실의 은혜가 담양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왕족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함이다. 혼탁한 정치현실의 회생양이 되어 한양에는 가지도 못하고 담양에 머물러 있는 처지이지만 왕족으로서의 지체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왕실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한 담양 생활은 다분히 이념 편향적이다. 담양에서의 생활 현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평화롭게 후진 양성을 하면서 산 공자, 역철학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 소강절, 순리로 정치를 했던 요순까지 등장시켜 모든 사람이 본연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본연의 마음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牛山伐木하는 모든 사람’과 ‘前溪擊水하는 모든 아이’에 비유하고, “伐木마소 伐木마소”, “擊水마라 擊水마라”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경계하면서 천부지성과 순리로 살아가라고 했다. 그러려면 소학과 대학을 차례로 배워 궁리정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순임금을 본받고자 한 안자가 얼마나 순수한지, 문왕을 스승 삼고자 한 주공의 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다고 했다. 순임금과 문왕이 순리대로 왕위를 물려 줬듯이 순조롭게 이어가는 조선 왕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벌목 격수에 비유하여 경계한 것이다. 단락②에서 “聖子神孫”이 계계승승할 것이라 하고 단락④에서 “北闕”에는 “良臣”이 있다고 하고 단락⑥에서 “聖主良臣”이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서는 항상 왕족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단락⑧은 작품의 결사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피꼬리와 봉황에

비유하여 사람은 머물 곳을 알아서 머물 줄 알고 덕으로써 덕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당연히 그런 덕을 볼 줄 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제갈량과 도연명이 시골에 은거하며 불구문달하였듯이 자신도 담양에 머물러 살면서 안빈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쫓아다닌 毛遂와 蘇秦을 비웃으면서 竹裏川邊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학문을 도야한 王摩詰과 程明道를 기렸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담양 땅에서 안빈낙도하는 자신의 삶의 명분을 먼 옛날 선현들의 삶을 본받는 데서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단락⑨는 작품의 결말인데, 시상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결말은 2행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는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書不盡意 圖不盡情 이니事業 뉘알소냐

(나) 仲長統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히여셔라

(가)에서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뜻, 그리고 그림으로써도 다 하지 못하는 정의 속뜻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곤륜산의 정기가 뺏어내려 조선에 이르고, 조선 팔도의 산맥이 뺏아내려 담양에 이르는 과정을 호기있게 펼쳐면서 자신의 이념적 삶을 갈등없이 보여주다가 갑자기 글로써도 그림으로써도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그 사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행 (나)에서 “仲長統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히여셔라”라고 했는데 왜 하필 중장통의 <낙지론>인가?

(가)의 의미는 (나)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중장통의 <낙지론>을 살펴보자. 중장통은 후한 말 사람으로서 학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기개가 있고 당시 사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중장통이 쓴 글이 <낙지론>이다. <낙지론>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뜻

을 밝힌 글이다. <낙지론>에 나타나 있는 그의 시골 생활은 良田廣宅과 舟車使令이 있고 舞雩詠歸할 수 있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것이었다.¹⁵⁾ 그리고 老氏之玄虛의 도가적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활이었다. 결 말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은하수를 넘어서 우주 밖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어찌 제왕의 문에 드는 것을 부러워하리오?”¹⁶⁾라고 했다. 중장통은 은일을 했지만 안빈낙도했던 인물은 아니다. 그리고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曹操의 軍師가 되어 출사, 정치현실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은일이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¹⁷⁾

<낙지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가)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가)에서 “書不盡意 圖不盡情 이니事業 뉘알소냐”라고 했다. 이 물음은 <낙지가> 단락①~⑧에서 말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하겠다고 한 것은 중장통의 처신에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장통이 신랄한 현실비판의식으로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낙지론>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말은 한 마디도 안 했듯이, 이서 역시 <낙지가>에서 정치현실은 완전히 배제하고 ‘낙지’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 이서는 정치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풍요롭고 여유있는 은일 생활을 그린 <낙지론>의 호기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안빈낙도하고 修身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여줬지만 그 이

15) 조민환, 『중장통 <낙지론>을 통해본 은사의 삶』, 『동양예술』 제25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4, p.365.

16)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황건 엮음, 『古文眞寶 後集』, 을유문화사, 2007, p.161. “如是 則加以凌宵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17)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비교』, 『한민족어문학』 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177.

면에는 그만큼의 현실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가)에서 암시한 것이다.¹⁸⁾ 앞서 언급한 작품 <술회>에서 보여준 정서를 <낙지가>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낙지론>은 도가적 은둔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 <낙지가>는 철저하게 유가적 은구¹⁹⁾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서가 호화로운 은일생활을 했던 중장통을 사숙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은일생활 역시 왕족으로서의 은일생활이었지 寒土의 은일생활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작품에서 보여 준 유가의 정치이념이나 안빈낙도는 물러난 선비들의 은일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념적 이념 지향, 또는 은일의 명분 찾기의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장소성의 개념²⁰⁾을 통하여 <낙지가>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 이서는 단락②에서 자신의 고향인 한양의 문물제도를 칭송하면서 성자 신손이 천만년 이어갈 곳이라 했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락①에서 곤륜산으로부터 대륙의 동서남북을 망라하는 산천의 정기가 삼각산까지 뻗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 이서 자신은 없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곳이기에 한양은 친밀한 장소로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체험적 구체성은 없고 관념적 이념만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한양은 이서가 터를 잡고 깃들여 살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그리워하기만 해야 하는 잃어버린 장소이다.

18) 이러한 갈등은 이서의 전원예의 귀의가 자신의 본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기, 앞의 글, p.51 참조.

19) 은둔은 노장적 현실부정이요, 은구는 유학적 현실긍정이다. 사대부의 귀거래, 즉 은일은 경국제민의 뜻을 구하는 은구요, 명철보신을 꾀하는 獨善이다. 최진원, 앞의 글, pp.32-33.

20)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p.7-8 참조.

단락③④는 새롭게 터를 잡은 담양, 단락⑤⑥은 자기가 살 마을의 초당이 천하의 명당이고 미풍양속이 승한 고장임을 자랑했다. 이러한 표현은 타향에서 자신이 새롭게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명분 찾기이고 마음 다잡아먹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작가 자신은 없다. 그리고 단락⑦⑧에서도 자신의 이념적 지향이나 다짐을 말했을 따름이지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 모습은 없다. 실제의 경험적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서는 담양과 응봉 아랫마을에 대하여 최대의 찬사를 쏟아 놓으면서 여기를 자신이 새로 살아갈 장소로 만들려 했지만 그곳에서 친밀한 장소의식을 느끼지도,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²¹⁾을 가지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양이나 응봉 아랫마을도 의식 속에서만 안빈낙도를 하고 있는 불완전한 장소이다. 이서는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아온 장소를 상실하고, 담양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왔으나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장소의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관념의 세계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낙지가>에 나타난 작가 이서의 관념적 의식세계이다.

Ⅲ. <서호별곡>의 와유 풍경과 관념적 흥취

<서호별곡>의 작가 허강은 아버지의 유배와 유배지에서의 별세 등 쓰라린 경험을 한 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40년 동안 한강 서호에 머물렀다. 그 후에 아버지 허자는 신원되었지만 허강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21)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앞의 책, p.150 참조.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치현실에 대하여 비분강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서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봄날 한강 유람을 하고 쓴 작품이 <서호별곡>이다.

먼저, 단락을 나누어 작품 전개를 살펴본다.

- ① 봄을 맞이한 감회
- ② 한강 유람길을 나서서 한남나루에서 출발, 봉도에 이름
- ③ 동작나루에서 용산까지의 유람
- ④ 서강 주변의 유람과 풍류
- ⑤ 송호의 풍경과 풍류
- ⑥ 호탕한 취흥과 뱃놀이
- ⑦ 무우영귀의 기상

먼저 작품 서두인 단락①과 한강 유람의 시작 대목인 단락②의 앞 부분, 작품의 결말인 단락⑦을 인용해 본다.

- ① 聖代에 逸民이되여 湖海에 누어이셔
時序를 니젓쌌다 三月이 저므도다
- ② 角巾 春服으로 세네 번 드리고
檣楫 松舟로 蒼梧灘 건너
軟沙 閑汀의 안즈며 날며
오며가며 嘯여이셔
一點 蓬島는 늘 위히여 떠오노
- ⑦ 舞雩에 曾點氣像은 어찌턴고 흥노라²²⁾

22) 임기중 편, 앞의 책, pp.237-238.

단락①은 봄을 맞이한 작가의 감회이다. 시절을 ‘성대’라 하고 자신을 ‘일민’이라 했다. 성대는 물러난 사대부의 당시 사회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일민이라 자처한 데서 현실인식의 한 단면을 내비치고 있다.²³⁾ 어쨌든 湖海, 즉 강호로 물러나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 삼월이 다 저물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서둘러 한강 유람길에 나서는 모습을 단락②에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 유람길은 한강 뱃놀이이지만 선현들의 은거 생활에 대한 연상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작품에 등장시킨 많은 은거 생활 중 작가가 지향한 궁극적인 은거 생활은 曾點의 ‘舞雩詠歸’²⁴⁾이다. 단락①에서 계절을 늦은 봄으로 설정했고 단락②의 시작 대목에 봄옷을 갈아입고 서너 벼를 데리고 유람길에 올랐다고 한 것은 논어의 ‘무우영귀’ 대목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인 단락⑦에서는 ‘무우의 증점기상이 어떠한가’라는 수사의를 통해 많은 은거 중 증점의 은거를 최상의 것으로 여겼음을 말했다. 서두

23) 일민은 초야에 묻혀 있어서 조정이나 사회에 나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인재를 의미함. 『論語』『微子』. “逸民은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류하혜, 소연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은 伯夷와 叔齊일 게다. 류하혜와 소연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거니와, 그들의 말이 조리에 맞았고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생각에 맞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쪽 살아갔을 따름이다. 우중과 이일은 퇴은해서 살면서 하고 싶은대로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거니와 그들은 몸을 순결하게 가질 수 있었고, 물러나 사는 것은 시의에 합당하였다. 나로 말하면 이와는 달라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逸民 伯夷叔齊處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 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 處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清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24) 『論語』, 『先進』.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소망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공명에 대하여 얘기했는데, 증점은 “늦은 봄에 봄옷이 다 되어서 成人 5.6명과 아이들 6.7명이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을 쏘이고서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莫春者春服既成冠者五六人童子六七八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고 대답하자 공자도 증점의 편에 서졌다고 했다.

와 결말을 호응시켜 ‘무우영귀’의 풍류를 지향했던 것이다. 일민으로 자처하면서 무우영귀를 지향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한강 유람 과정을 노래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람의 과정은 단락②에서부터 단락⑤까지인데 지역은 한남나루에서 서강 주변 송호까지이다. 먼저, 단락②를 살펴본다.

角巾 春服으로 세네 벌 드리고
 檣楫 松舟로 蒼梧灘 건너
 軟沙 閑汀의 안즈며 날며
 오며가며 ㅎ여이서
 一點 蓬島는 놀 위히여 띄오노
 春日이 載陽ㅎ야 有鳴 鶻庚이어든
 女執 懿筐ㅎ야 爰求 柔桑이로다
 瞻彼 江漢ㅎ야 聖化을 알리로다
 漢之 廣矣여 不可 詠思여
 江之 永矣여 不可 方思로다

무우영귀의 분위기로 시작한 한강 유람은 곧바로 『시경』의 여러 장면과 겹쳐진다. 유람을 시작하면서 노 젓는 배를 보고 <竹竿>²⁵⁾의 檣楫 松舟를 연상했고, 봉도에 다가가면서 봄 햇살과 피꼬리 울음소리에 <邠風>²⁶⁾의 뽕따는 처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넓은 한강에 배를 띄우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漢廣>²⁷⁾의 표현을 가져왔다. 그리고 순임금의 설화가 얹혀 있는 창오탄,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 <한광>에 나오는 한강 등 모두 고사와

25) 『詩經』, 『國風』, 『衛風』, <竹竿>. “…… 淇水滄滄 檣楫松舟 駕言出遊 以寫我憂.”

26) 위의 책, <邠風>.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

27) 위의 책, <漢廣>. “…… 漢之廣矣 不可詠思 江之永矣 不可方思 ……”

옛 지명을 원용하였다. 특히 시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그 시에서 느낀 감동을 실제 자기의 경험세계에서 느꼈음을 의미한다. <한광>의 노랫말을 인용, 文王의 덕이 골고루 미쳐 아름다운 풍속이 생겼듯이 우리 임금의 聖化로 이렇게 유람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뱃놀이의 흥취를 즐겼던 것이다. 단락②를 보면, 대부분의 행이 용사이다. 작가는 한강을 유람하면서 독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전의 바다를 누비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실제 한강의 풍경이나 경험적 흥취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전의 바다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흥취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단락③에서는 또 다른 정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別區 漁村는 露河 | 란 말이
王維 輞川이마 柳州 露江이라
魚罾 在梁호니 이너의 生涯로다

단락③은 동작나루에서 용산까지의 유람 대목인데 그 중 노하, 즉 노들강의 어촌을 바라본 감회를 노래한 대목이다. 고뇌에 찬 은거생활을 했던 왕유의 망천, 그리고 좌천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유종원의 유주를 연상했다. “魚罾 在梁호니 이너의 生涯로다”라고 한 대목에서는 체념 어린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단락④⑤에서도 이런 상반된 정서의 교차는 반복된다.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흥겨운 뱃놀이 가운데서도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쓰라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뇌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서호별곡>을 개작한 <서호사>에서는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

28) 許穆이 <西湖詞跋>에서 “대개 그 노랫말이 천고에 비완하여 홀로 탄식하는 우의가 있어 봉래가 박자를 치며 탄식했다.(蓋其詞寓意 千古間有悲惋獨歎 蓬萊擊節歎之.)”라고 한 것도 이런 문맥적 의미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호사발> 원문은 김현식, <서호별곡>과 <서호사>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2004, p.191

을 피해 서호에 은거하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비통한 심정으로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²⁹⁾ 그에 비해 <서호별곡>에서는 정서를 가능한 한 절제하면서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유람지이고 자기의 호로 삼은 ‘송호’ 유람을 노래한 단락⑤를 살펴보자.

松湖늘 도라흐니
謝公 會稽이야 戴逵 剡溪이라
衡門 之下여 可以 棲遲로다
泌之 洋洋이여 可以 樂飢이로다
春草 池塘은 靈運 永嘉이며
周茂叔 濂溪로다
一片 苔磯는 桐江 釣臺라
毵毵 羊裘와 籊籊 竹竿으로
身世를 브터또다
河陽 逸士의 漁樵 問對乙
아느냐 모르느냐

송호 유람 대목에서도 자연과 은거한 선현들을 여럿 등장시켰는데 주된 의식은 棲遲樂飢와 漁樵問對에서 찾을 수 있다. 단락④까지 여러 유형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복잡한 의식세계를 보여주다가 이 대목에 이르면 작가의 의식은 『시경』 <형문>³⁰⁾의 직접 인용과 ‘하양의 일사 邵雍의 어초문대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같은 강한 의문형 표현으로써 가난하지만 즐거운

에서 재인용.

29) 김현식, 위의 글, pp.195-196 참조.

30) 『詩經』 「國風」 「陳風」 <衡門>. “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 豈其食魚 必河之魴 豈其取妻 必齊之姜 豈其食魚 必河之鯉 豈其取妻 必宋之子.”

마음으로 연분과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어초문대 대목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아버지를 잃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던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목소리이다. 자기의 호로 삼은 송호에서 마음을 잡은 것이다.

한강 유람의 종착지인 송호에서의 이런 의식전환은 단락⑥의 취흥으로 이어진다.

辟强 林泉과 栗里 田園의
 홀이리 뵈아히로다
 桃花 錦浪의 武昌 새버드리
 가지마다 봄미로다
 葡萄酒 鵝黃酒 鸞鷖爵 鸚武杯
 一日須傾 三百杯를
 馮池 蠻刀와 松江 鱸魚로
 光芒이 戰國히니 霍霍霏霏로다
 手揮 絲桐이오 目過 還雲히니
 滄溟 烟月이야 丕우리의 물리로다
 翩躚히 羽衣道士이 江皐로 다니며 무로더
 그더네 노로미 즐거우나 엇서히노
 湖山 千載에 아름답온 이를
 절로 아니라 사락막로 그리히니
 山陰 蘭亭도 右軍옷 아니면
 淸湍 脩竹이 蕪沒 沙山이랴다
 宇宙 勝賞을 좃즈리 업스마
 造物이 숨겼다가 天遊 盛迹이야 우리로 열리로다
 空明의 빛째를 흘리노하 가느디를 존니노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한 흥가분함 때문인가? 작가는 무한 취흥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도연명의 율리와 도화원으로 설정하고 이백의 <襄陽歌>의 한 대목을 인용,³¹⁾ 호탕한 취흥에 빠져들어 몰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노래했다. 그리고 蘇東坡의 <後赤壁賦> 결말의 우의도사를 등장시켜 신선경에 이른 자신의 모습을 과시했다. 또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조물주가 숨겼다가 우리에게 열어 주었다고 했다. 이름없는 산을 난정이 왕희지로 인하여 유명해졌듯이 서호도 자신이 알아줌으로 해서 아름다워졌다고 호기있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달밤에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가는 대로 가 보겠노라고 했다. 한강에서의 무한 흥취를 노래하면서 어초문답에서 얻은 해답, 이런 저런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거기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찾은 삶의 모델이 무우의 증점기상이다. 유람 길에 나선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인물과 지명을 동원하여 도가적 은둔, 유가적 은구, 가없는 취흥 등 복잡한 의식과 정서를 보여주었는데 결말에서는 공자도 동감한 무우의 증점기상으로 귀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단락①에서 ‘성대의 일민’으로 자처한 작가는 갈등과 고민 대신 유유자적 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단락⑦ “舞雩에 曾點氣像은 어찌된고 흥노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서호별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행에서 은거 선현들을 등장시키고 그들과 관련된 고사와 시구를 원용하였다. 한강을 유람했지만 작가의 의식은 대륙의 천하를 臥遊하였다. 시경·

31) 李白, <襄陽歌>. “…… 鸕鷀杓 鸚鵡杯 百年三萬六千日 一日須傾三百杯 ……”.

논어와 같은 경서나 은일 한사들의 시구를 되뇌기도 하고 당시의 장면을 연상하기도 했다. 한강의 실제 풍경은 문제가 안 되었다. 즉, 한강 유람 시에 작가가 마주친 실제의 풍경은 거의 없다. 그리고 유람할 때 일어났던 시상이나 정서의 표현도 대부분 선현들의 고사에서 빌려왔다.

허강은 한양이 고향이고, 한양의 서호에 머물러 살았다. 고향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곳이다.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있는 정신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³²⁾ 따라서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³³⁾ 이런 장소의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서호별곡>은 ‘서호’ 사람의 삶의 현장이나 구체적인 경험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작가의 몸은 ‘서호’에 있었지만 의식은 대륙의 강호를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서호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유람의 흥취는 서호의 것이 아니라 공간적·시간적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허강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장소로 삼을 수 있는 고향을 두고 관념의 세계를 유람하고 있었을까?³⁴⁾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의 이념인 경국제민을 생활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손을 뚫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물러남은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지 현실도피는 아니었던 것이다.³⁵⁾ 허강 역시 아버지로 인해 고초를 겪고 서호로 숨어들

32)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p.95.

33) 위의 책, p.150.

34)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남열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81-306. 정민은 선조조 문학에 성행했던 중국 강남지역, 특히 서호의 풍광에 대한 선망과 동경의 풍조가 <서호별곡>과 같은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했다.

었지만 사대부임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서호별곡>의 여러 대목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물러남이 자기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정치현실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허강은 내심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그 갈등이 이런 관념의 세계로 유도하지 않았을까? 혼란한 정치현실을 피하고자 서호에 깃들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옛 선현들의 은거는 서호에 깃드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현란할 정도로 다채로운 은일고사의 인용은 작가의 이런 고민을 덮어주고 은거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흥취를 고양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호별곡>의 작가 허강은 고향을 자기 삶의 진정한 장소로 만들지는 못했다. 몸은 서호에 있었지만 마음은 관념의 세계를 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호별곡>의 관념적 흥취이다.

IV. 마무리

16세기 초·중반, 소위 사화기를 거치면서 조선 사대부 사회는 분열과 혼란의 연속이었고, 그런 정국은 사대부들이 벼슬을 그만 두고 歸隱하는 풍조를 조장하게 되었고, 귀은의 상황은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들에게 매우 큰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글에서는 이 시대 문학의 한 단면을 조명해 보기 위해 은일가사인 이서의 <낙지가>와 허강의 <서호별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낙지가>는 곤륜산으로부터 담양의 응봉에 이르기까지 명산들의 정기를 타고 내려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작품의 전개가 매우 짜임새 있게

35) 최진원, 앞의 글, pp.23-33.

구성되어 있다. 신성하고 힘찬 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조선은 세계 최고 신성의 나라로, 담양은 최선의 고장으로 만듬으로써 왕족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리고 은거하는 명분을 만들어 유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결말에서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하겠다고 한 것의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중장통은 정치현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낙지론>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고 여유있는 은일생활을 설파했는데, 이서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그런 중장통의 삶과 작품에 공감하고 그런 삶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지론>을 통해 볼 때, 중장통은 매우 호화로운 은일생활을 했는데 이를 사숙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서 역시 왕족으로서 여유로운 은일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작품에서 보여 준 안빈낙도는 은일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념적 이념 지향, 또는 은일의 명분 찾기의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장소의식을 통해서 <낙지가>의 작가의식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작가는 자기가 터를 잡은 담양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장소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유가적 이념 지향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결국 이서는 태어나고 자란 한양이라는 장소를 상실하고 담양에 살았지만 담양도 진정한 장소로 만들지 못하고 관념의 세계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낙지가>에 나타난 작가 이서의 관념적 의식세계이다.

<서호별곡>은 작품 전반에서 수많은 은거 선현들을 등장시키고 그들과 관련된 고사와 시구 등 전고를 원용하였다. 한강을 유람했지만 작가의 의식은 대륙의 천하를 와유하였다. 한강의 실제 풍경은 문제가 안 되었다. 따라서 한강 유람 시에 작가가 본 실제의 풍경이나 유람할 때 일어났던

시상·정서의 표현도 대부분 전고에 의존했다.

장소성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허강은 고향인 한양에서 일생을 보냈다. 고향은 어떤 곳보다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있는데 허강은 그런 고향에서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서호별곡>에는 실재하는 서호의 풍경, 서호에 사는 허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옛 선현들의 삶으로 덧씌운 모습만 나타나 있다. 몸은 ‘서호’에 있었지만 의식은 선현들의 강호를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선현들의 강호는 실제로 발디디고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 속에만 존재했던 관념적 장소인 것이다.

전고의 인용과 관념적 장소의식은 은일지사로서의 여유와 풍류를 과시하고 은거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선현들의 삶을 통해서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 물러나 살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덮고 풍류를 즐기고 흥취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서호별곡>의 관념적 흥취이다.

사화기에 나온 <낙지가>와 <서호별곡>은 혼란한 정치현실을 피해 시골에 묻혀 사는 작가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두 작품 공히 정치현실의 난맥상은 최대한 배제하고 은일지사의 이념과 흥취를 그렸다. 그렇지만 작품을 좀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본 결과, 작가의 갈등이나 고민이 행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의 구체적인 경험을 최대한 배제한 두 작품의 공통점은 관념성이다. <낙지가>는 왕족으로서 한양을 떠나 시골에서 사는 명분을 철저한 유가적 삶에서 찾으려 했고, <서호별곡>은 은거생활의 명분과 흥취를 옛 선현들의 은일고사에서 찾으려 했다.

그리고 장소성의 측면에서도 두 작품에는 진정한 장소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아 두 작가의 은일생활이 안정적이고 평화롭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 없는 삶이나 유람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는 듯하지만 작품 현장이나 작가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의 구체적인 모습은 보

이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선언적 목소리로 보여주거나 과거 선현들의 은일고사에 기대고 있어서 두 작가는 자기 삶의 장소를 관념 속에서만 구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낙지가>와 <서호별곡>은 혼란한 정치현실이 관념을 낳고, 그 관념이 은일지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낙지가>·<서호별곡>과 동시대의 작품으로서 송순의 <면앙정가>가 있는데, <면앙정가>는 이 두 작품과는 거의 상반된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성향이 다른 이들 작품을 포괄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 시대 문학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論語』

『詩經』

李緒, 『夢漢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2285, 경인문화사, 1997.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황건 위음, 『古文眞寶 後集』, 을유문화사, 2007, p.161.

임기중 편,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2. 논문 및 단행본

김동욱, 「허강의 서호별곡과 양사언의 미인별곡」, 『한국가사문학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정음사, 1979, pp.272-283.

김성기, 「이서의 낙지가 연구」, 『고시가연구』 제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0, pp.39-59.

김현식, 「<서호별곡>과 <서호사>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송재연, 「이서의 시가에 나타난 창작의식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5, 한중인문학회, 2014, pp 133-153.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pp.79-87.

- 이상원,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한민족어문학』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175-178.
- _____,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비교』, 『한민족어문학』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177.
- 정 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강남열과 서호도』, 『고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81-306.
- 정익섭, 『이서의 낙지가 고찰』, 『국문학보』3, 전남대, 1962, pp.1-19.
- 조규익, 『동애유고 부록 가사에 대하여』, 『송실어문』 제12집, 송실어문학회, 1995, pp.235-240.
- 조민환, 『중장통 <낙지론>을 통해본 은사의 삶』, 『동양예술』 제25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4, p.365.
-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1, p.13.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50.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p.7-8.

Abstract

Ideality and author's consciousness of Eunilgasa <Nakjiga>
and <Seohobyulgok> in the era of Sahwa

Choi, Sang-Eun

In this article, I tri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Eunilgasa of the era of Sahwa in the early Josun Dynasty around <Nakjiga> and <Seohobyulgok>. <Nakjiga> is the work that well exposed author's consciousness that live by royal pride and Confucian philosophy in Joseon where received vital force of celebrated mountain from Kunlunshan to Eungbong, and in Damyang where is standard in Joseon. And <Nakjiga> exposed author's consciousness that want to hermit life to rely on Zhongchangtong's <Nakjiron> by forgetting the chaotic political reality. By the way, Looking from sense of place, <Nakjiga> also exposed that writer Lee-Seo was staying only in the world of the idea. Because he lost his place Hanyang and lived in Damyang, but he didn't make Damyang place. <Seohobyulgok> illustrates writer's figure of taking imaginary trip to hideout of ancient sages through the authentic precedent, instead of the actual scenery of the Hangang and Excitement of the excursion. Heo-Gang did not have a real sense of place in the Hangang. So he searched about for natur of ancient sages. Natur of ancient sages is the abstract place only in consciousness that is not place of concrete experience. He was able to cover complaints and frustration about the political reality and show off the poetic adventure indulge in the excitement through citation of an authentic precedent and abstract sense of place. This is abstract excitement of <Seohobyulgok>. <Nakjiga> and <Seohobyulgok> have in common that two works described abstract philosophy and excitement by excluding conflicts related to the political reality as much as possible. Here could say that two works both involve conflicts behind hermit life through incomplete sense of place. Here could say that two works both involve

conflicts behind hermit life through incomplete sense of place. <Nakjiga> and <Seohobyulgok> tell us the process that chaotic political realities bring about idea, the idea becomes indicators of life of hermits.

Key Word : Eunilgasa, era of Sahwa, political reality, Idea, authentic precedent, sense of place, <Nakjiron>

최상은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sechoi@smu.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
--